

# 불안한 내면을 그림으로 승화한 두 거장

**로버트 마더웰**

미국 추상표현주의 1세대

**르네 마그리트**

벨기에 초현실주의 대가

#1948년 화가 로버트 마더웰(1915~1991)이 미국 뉴욕으로 이사한 직후 첫 번째 부인 마리아가 떠났다. 마더웰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이듬해 베티 리틀과 결혼하지만 결국 파국을 맞는다. 극도의 불안 양세와 폭음으로 정신과 상담 까지 받지만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작가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한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 '스페인 공화국에의 비가'가 시작됐다. 숨막힐 정도로 육중한 기둥 사이에 타원형이 간힌 추상 표현주의 그림이다. 감옥 창살 사이로 사람의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다.

#1912년 벨기에 상브르 강에서 르네 마그리트(1898~1967)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신의 얼굴을 덮은 하얀 천은 당시 14세 소년이던 마그리트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강렬하게 낙인됐다. 그가 성장해 화가가 된 후에 흰 천을 뒤집어 쓴 채 키스하는 연인을 그리거나, 얼굴만 몸에서 분리해 공중에 띄운 초현실주의 그림에 집중했다. 유년 시절 트라우마가 그의 작품 세계를 지배한 것이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영향을 받아 무의식 세계나 꿈의 세계를 지향한다.

미국 추상표현주의 1세대 작가 마더웰



로버트 마더웰 '스페인 공화국에 의한 비가 110번' (왼쪽)과 르네 마그리트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도의 습작' (오른쪽).

과 벨기에 초현실주의 거장 마그리트 그림의 뿌리는 불행이다.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내면의 불안을 그림으로 승화했다.

삶과 예술 터전이 달랐지만 두 사람 사이에 독일 초현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와 프랑스 초현실주의 시인 앙드레 브르통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마그리트는 1925년 에른스트 영향을 받아 최초의 초현실주의 작품을 완성했으며, 1927년 파리로 이주해 3년간 브르통이 속한 파리 초현실주의 그룹과 교류했다. 마더웰은 1941년 브르통, 에른스트, 전설적인 칼렉터 페기 구겐하임과 만나 초현실주의 잡지 'VVV' 미국 측 편집인을 맡게 됐다.

마그리트는 브르통과의 불화로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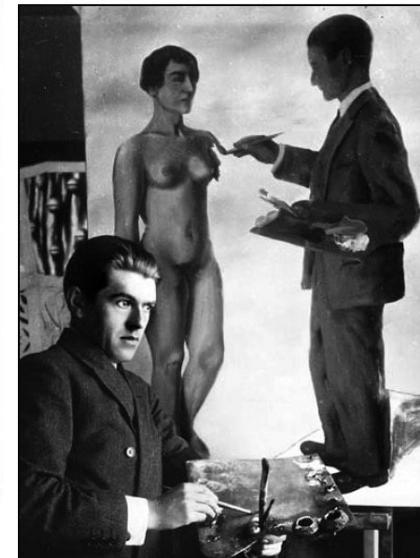
## 불행한 가정사 토대로

## 독보적인 예술세계 구축

## 마더웰 회화 대작 '비가'

## 마그리트 사진·영상 전시

초현실주의 그룹과 소원해진 후 1930년 벨기에로 돌아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마더웰은 1942년 이후 물감을 흘리고 뿌리는 액션 페인팅 작가 째슨 폴록(1912~1956), 색면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 추상화가 월렘 드 쿠닝(1904~1997) 등과 함께 미국 추



상표현주의 1세대 그룹인 '뉴욕 스쿨'을 결성해 세계 미술 중심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데 기여했다.

세계 미술사에서 독보적인 예술축을 차지하고 있는 마더웰과 마그리트 전시가 미술계 봄을 열고 있다. 서울시 삼청동 바라카 컨템포리리에서는 5월 12일까지 마더웰 개인전 '비가 (悲歌)'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당긴다.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뮤지엄 그라운드에서는 7월 10일까지 마그리트의 사진·영상 전시가 계속된다.

마더웰 전시에서는 1958년부터 1985년까지 그려진 그림과 습작, 판화 등 23점이 걸려 있다. 1958년 시작된 '스페인 공화국에의 비가' 연작은 스페인 내전과 투

우장, 로르카의 시 '이그나시오 산체스 메히아스를 위한 비가', 멕시코 혁명, 스페인 화가 고야, 어두운 히스파닉 실내장식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마더웰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메타포(은유)이며 단순히 '스페인'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위대한 추상표현주의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로버트 라우센버그, 재스퍼 존스, 사이토 블리 등 제자들을 배출한 스승이기도 하다. 문의 (02) 730-1948

최근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1953년 그림 '사이렌의 노래'가 34억7000만원에 낙찰되면서 화제가 된 마그리트 원화는 이번 전시장에 없다. 대신 그림의 토대가 된 사진과 축소된 복제 그림(레플리카) 130여 점이 걸려 있다.

마그리트는 사진을 찍어 구도를 잡은 후 그림을 그렸다.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는 남자의 가슴 대신 새장이 있는 1937년 그림 '치유자', 영화 '판토마' 주인공이 왼쪽 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1943년작 '화염의 역류' 역시 사진이 먼저였다.

전시장에는 눈을 가리고 있는 인물 사진이 유독 많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자비에 카노네 벨기에 사를루아 사진미술관장은 "작가는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실제 인물을 100%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모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마그리트가 대표작인 '통찰력'(1936)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도'(1928)를 그리고 있는 사진은 이번 전시의 백미다. 명작이 탄생한 현장을 목격하는 기분이 든다.

문의 (031) 265-8200 전지현 기자  
(29.4\*19.1)cm